

크스님 수행한담

제대로 고쳐야 난국 극복



97년 대총사에서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신도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스님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 체중이 내려가듯 무뎠던 시원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찾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 한암스님께서는 주로 <금강경>을 배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금강경> 서문은 지금도 외고 있고 후학들에게도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잘못은 잘할 수 있는 근본”
오늘의 경제위기 극복
고치고 줄이고 아끼는
전화위복 지혜 필요

능히 크지 못하고, 쪼다 능히 작아지지 못하는 세상물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물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름이란 마음경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암스님께 경전을 배운 후 선을 공부하기 위해 해인사로 갔습니다. 마음자리를 깨쳐 도를 이룰 때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각오를 가지고서요.

60이 다됐는데 주지노릇을 하라고 하네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것은 뭐라 하겠느냐고 뿌리쳤는데 성철스님께서 권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2년반정도 소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요즘 나라살림이 말이 아니지요.

“계율은 수행 의지처...개정 있을 수 없어”
“근본계율 안 지키면 말로만 불자일 뿐”

계했습니다. 지월스님께서도 몸소 가르침으로 나를 깨우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천수경>을 외느라 불에 손을 올려놓는 것을 잊어버려 밥을 까맣게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라 일어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서문 처음에 “有一物於此(유일물어차) 하니 一物(일물)이 何物(하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할 수 없이 피난을 다니다 선산 도리사에서 지월스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35
나와 경전
백유경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

침, 팔년 전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이라는 책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았다. 불교와 과학을 접목시킨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라 자부한다.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네가지(흙, 물, 불, 바람) 작용에 의해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로 어리석음 일깨워
일상생활과 관련된 98가지 이야기

고, 그의 제자인 구나브릿다가 492년에 한역했다. 원래 범어의 명칭은 <우파마스타카수트라>로 치화만(薩婆)이라고 번역된다.

습니다. 그는 순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불에 태웠습니다. 이때 솜을 팔던 장사꾼이 불에 달구어진 금을 몰래 훔쳐서 틀라슈 속에 감추었습니다.

Advertisement for '불로화정 (不老化精)' health supplement.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for aging, a testimonial from a docto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如來健康院' (Ryūrai Kenkōin).